

미국 영어 구어체 표현의 연구

—연재만화 『블론디』의 영어를 중심으로—

조 병 태

1

미국영어의 구어체(colloquial) 표현의 실체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필자는 미국의 신문연재 만화의 하나인 ‘블론디’(Blondie)의 영어표현을 고찰하기로 한다. ‘블론디’의 창시작가는 Chic Young(본명은 Murat Bernard Young(1901-73))이며 미국의 공황기인 1930년대 역경에 처한 미국인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재만화이다. 1930년 9월부터 시작하자 곧 미증유의 인기를 얻었으며 1973년에 Chic Young이 유명을 달리한 후에도 아들이며 후속자인 Dean Young에 의해 계속되어 오고 있다. 1984년부터는 Stan Drake(1922-97)과 공동으로 집필했는데, 금년 3월 10일에 Drake마저 사망하였으며 현재는 Dean Young 단독으로 집필하고 있다. 30년 Chic Young에 의해 탄생한 ‘블론디’는 현재 Dean Young에 이어져 67년동안이나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전세계 55개국 2,000여 신문에 일요일 제외, 매일 연재되고 있으며 독자는 2억5천만명을 상회한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는 1954년 7월 13일 한 신문지면에 한국어 역이 첨가되어 지금까지 장장 근 반세기 동안 절찬속에서 연재되고 있다. 원래의 4토막의 연속만화(comic strip)의 형식이였지마는 90년대 중반부터는 3토막으로 구성되고 있다. 등장인물을 언급하자면 Blondie Boopadoop는 처

음에는 지능이 별로 없고, 바람기가 있는 소녀로 등장. 역만장자의 아들이며 놀기 좋아하는 청년 Dagwood Bumstead에게 애모당한다. 1933년 Dagwood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와 결혼하여 친부모와 의절하여 봉급생활자로 낙착된다. 이 작품은 미국을 대표하는 가정만화로 명성을 얻고 있다. Dagwood는 실책투성이며, 집밖에선 사장에게 시달리고 집안에선 아내에게 야단맞고 겨우 목욕과 TV와 샌드위치로 행복을 누린다. Bumstead일가는 어느 도시의 교외에 산다. 왕년에 Dagwood Bumstead는 부친 회사의 귀여운 타자수 Blondie와 결혼한다. 두 사람의 사랑은 현재의 미국인의 기억에 없을 정도로 오래전 일이다. 이 부부에게 외아들 Alexander와 외딸 Cookie가 있으며 애완견 Daisy도 애교있는 가족의 한 구성원이다. Bumstead집 이웃에 Herbert Woodley와 그의 처 Tootsie가 살고 있다. 1990년대에는 Blondie와 Tootsie가 합작하여 주문에 따라 음식물을 조달하는 장면에 등장한다. Dagwood는 처음에는 버스로, 90년대에는 car pool로 시내에 있는 어느 건설회사에 출근한다. 신경질이 강하지만 인정많은 사장의 이름은 Julius C. Dithers. 그의 처 Cora, 수시로 현관에서 Dagwood와 마주치는 우편배달인 Beasley, 이웃집 소년 Elmo (Fiffenhauser), Dagwood의 직장동료 Eddie, Paul 등, car pool로 아침저녁으로 동승하는 이웃들, 단골 이발사, 매일 출입하는 점심 식당의 요리사, 수도·가스관을 수리·부설하는 연관공, 호구 방문위주의 행상인들이 단골로 등장한다. Blondie는 타고난 매력 외에 결혼생활과 직업인 음식조달업무로 생기와 애교가 넘치는 아내가 되어 가정살림을 영위한다. 전체적인 느낌은 미국의 소시민의 생활이 약간 과장된 형태로 낙천적으로 전개된다.

‘불론디’의 영어는 특정의 미국인 작가(들)이 쓴 영어이므로 이를 그대로 현실적 미국 표준구어(standard colloquialism)로 단

정함은 정당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특정의 문학작품과는 달리, 근 70년동안이나 인기 절찬속에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걸친 광범위한 일반독자를 대상으로 구어체(colloquial style)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점, 현대미국의 '소시민' 가정·사회 생활을 소재로 한 점을 고려하면 문헌으로서는 생활언어 중심의 대표적 표준 미국어 구어자료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리라 믿는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미국영어의 구어표현을 연재만화 '블론디'에서 수 없이 접하게 되어 연구자료로서 '블론디'의 영어표현이 매우 귀중하다. 한국어 번역과 원영어를 견주어 보면 한국어 역의 문제점을 알게되고 역자가 현대영·미어의 구어체 용법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은 본 논문 집필자만의 기우가 아닐 것이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구어표현에는 그 나름의 어법이 있으며, 구어표현은 언어 사용상황과 사용자간의 관계를 연관지어 즉 화용론(pragmatics)적 입장에서 연구해야한다는 점이다.

2

본 논문에서 고찰할 '블론디'의 영어의 자료는 지면관계도 있고 해서 1997년분의 작품위주로 한정한다.

(1) August 27th (At Blondie and Tootsie's catering store)

Blondie: (to an old male customer) May I help you?

A male customer: (to Blondie) Funny... I was on my way over here to order a surprise dinner party for my wife...

The male customer: (to Blondie, with Tootsie overhearing) But I just got a call from her on my car phone! **Now** all I want is a salami sandwich to go.

Blondie: (to Tootsie) They should outlaw those car phones!

Tootsie: (to Blondie) No kidding!

뒷부분의 Blondie와 Tootsie 발언부분의 한국어역은 “카폰은 못하게 해야해요!” “천만의 말씀!”으로 되어있다. You can say ‘**no kidding**’ to emphasize that what you are saying is true and that you are not trying to deceive anyone; an informal expression. Cobuild (p. 795)를 참조하면 한역 “천만의 말씀!”은 정반대의 의미인 “지당한 말씀!”으로 수정되어야겠다.

(2) July 31st (At the dress section of a department store)

Blondie: (Watching herself trying on a new dress in front of the looking glass, to Dagwood sitting in low spirits on a chair behind her, while a saleslady is waiting on Blondie) Do you like this dress, honey?

Dagwood: (to Blondie) I have to know one thing first.

Blondie: (to Dagwood) What's that?

Dagwood: (to Blondie) Is it on sale?

Blondie: (to Dagwood) No.

Dagwood: (to Blondie) No. (The saleslady looks shockingly embarrassed, turning her head right and left.)

마지막 이탤릭체 부분의 한역은 “아니요” “안돼”로 되어있다. Blondie의 No는 No, it isn't on sale의 축약형이다. 한편 Dagwood의 No(안돼)는 No, you should not buy that dress의 축약형인 듯하다. 그러나 Blondie의 첫 발언인 ‘Do you like this dress?’와 Dagwood의 ‘I have to know one thing first’를 고려하면 No, I don't like it로 간주되어 ‘안돼’는 “아니. 마음에 안드는데”로 수정함이 요망된다.

(3) July 29th (In Dithers' room)

Dagwood: (Dashing into Dithers' room in an outburst of anger to yell at him sitting idly in an armchair) You old ... if you think I'm going to take... of all the dirty...

_____ : And furthermore...

Dithers: (to himself looking at Dagwood storming out of his room with an enormous slam of the door) Poor Bumstead... He wants to tell me off, but it just won't come out. —Slam—

Dithers사장의 발언의 한역은 “가엾은 범스테드... 나에게 꺼지라고 말하고 싶은 모양인데 제대로 나오지 않는구먼”으로 되어있다. 구동사(phrasal verb)인 **tell off** (v adv.): to scold (someone), as for a fault; reprimand somebody 와 **come out** (v adv): to be expressed in speech; be spoken 의 의미임을 LDPV와 Word Wise등에서 참조하여 “범스테드 ... 딱한 녀석이군 ... 나를 몹시 꾸짖고 싶은 데, 저 친구 원하는대로 말이 한사코 나오지 않는구먼”이 무난한 해석일 것이다. 구어체 표현이해에서 구동사의 올바른 용법의 습득이 필요하다.

(4) July 16th (Dagwood is driving his car for his car pool, Herb, Fellas, and Claudia in it.)

KERPOW BLOOIE **Blam!! Blam!!** (Dagwood's car is running down the road with a heavy, awkward movement)

Fellas: (to Dagwood driving his car) Your car could sure use a tune-up, Dag.

Dagwood: (keeping on driving his car, to Fellas) Hah, that's how

much you know about engines!

Dagwood: Last weekend I gave it a complete tune-up myself!

Chug Chug Blam Blooie (The car is coming to a virtual stop on the road with big noises.)

Fellas와 Dagwood의 첫 발언부분의 한역인 “차를 확실히 튜업 했군요, 대그우드씨” “하, 엔진에 대해 꽤 많이 아시네요!”를 살펴본다. could/ can use Object는 ‘O가 있으면 좋겠는데; O가 필요하겠는데’의 뜻이며 구어체 표현으로 could의 형태는 가정법의 표시이며 과거사실의 표현은 아니다. “I *could* use something cold to drink” said a very familiar voice.—Salinger, *Raise High*/ She kissed him at the door and said, “You look like you *could* use a drink.”—Benchley, *Jaws*. 동사 use는 to want, to need 정도의 뜻이다.¹⁾

Dagwood의 애칭으로 단축된 Dag형은 아주 친한 동료간에 흔히 사용된 점과 감탄사 hah의 다음 서술에 유념하기 바란다. You say *hah* or *ha* when you want to surprise someone or show that you suddenly feel...annoyed: an informal use; “*Hah, you don’t know what you are saying.*” (Cobuild p.649). 이런 점을 고려하면 문제된 부분의 한역은 “이 차 엔진조절을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겠는

1) Blundell et al. *Function in English* (p. 37)의 다음 인용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Informal style] It’s a scorching day and you’re out for a walk with a friend, Julie... 5 I’m dying for a long, cold drink... Well, there’s a cafe over there. Let’s go and get one. 6 I want.... 7 I must have.... 8 I could use /could do with.... 9 I’m dying to... 10... would go down well. 11... would just suit me. 12 I’d love... 13 I wish I could... 14 If only I could... 15 I’ve got to have...
번호 8의 I could use 의 부분에 유념할 것. ... 부분은 이탤릭체인 a long cold drink를 삽입할 것.

결, 대그우드.” “허허 참, 엔진을 얼마나 많이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가.” 정도로 수정함이 필요하다.

(5) April 25th (Just inside the front door of J.C. Dithers' Company)

Dithers: (to Dagwood coming to work on time in the morning and some other employees standing beside him) Look, everyone! Miracles **can** happen! Bumstead is here on time!

Dithers: **The unthinkable has actually become a reality!!**

Dithers: (standing on his head in front of Dagwood and other employees) **Prepare a feast! Strike up the band!!**

Dagwood: (to himself, making a long face) That does it... I'll never be early again.

Dagwood의 발언 중 That does it... 의 한역은 “저렇다니까...”로 되어 있다. ODCIE (p. 542)의 **that does it**²(informal) that is as much as I can endure; the limit of my patience has been reached와 Manser (p. 40)의 **That does it!** I cannot bear any more!; I am now going to take some action: said after a series of unfortunate events have happened를 참조하면 해당부분의 한역은 “더 이상 못참겠어...”가 되어야겠다.

(6) Sept. 11th (Dagwood and Elmo are going to work and school in the morning, respectively.)

Elmo: (to Dagwood) Hey, Mr. Bumstead, your shoelace is untied.

Dagwood: (to Elmo) It is?

Elmo: **Ha-ha!! April Fool!! Ho-ho-ho!!**

Dagwood: Elmo, that only works on April Fool's Day.

Elmo: Like heck it does! It worked today, didn' t it?!

Elmo의 마지막 발언의 한역은 “지급도 돼요! 오늘도 통했잖아 요?!”로 되어있다. LDEI (p. 162) **like hell/heck** (used in emphatic replies to statements that the speaker disagrees with, disbelieves, or feels anger at): *When I said I wanted to go on holiday with my boyfriend, my mother said, 'Like hell you will!' = I shall not allow you to go.* like hell/heck구는 언제나 이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문장 앞위치에 놓이게 되고 heck형은 hell형의 완곡 어법 표현 (euphemism)임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LDEI (p. 162)에 Often shortened to **like hell!** [interj.] Also (coll): **the hell/heck/devil/deuce; like fuck** (taboo sl)로 서술을 마치고 있다. like heck it does의 이탤릭체 부분은 대동사(pro-verb) 구문으로 that works on April Fool's Day로 간주되며 (만우절은 정확히는 April Fools' Day로 표기한다.) Dagwood와 Elmo의 마지막 발언을 우리말로 옮기면 “엘모야, 그런건 만우절에만 (일년에 단 한번) 통하는 거란다.” “그렇다면 만우절엔 결코 (그런건) 통하지 않아요. 오늘 이미 통했잖아요?!”로 수정되어야겠다.

(7) Oct. 18th (In the golf course)

Dagwood: (to Dithers) I'm getting better every time I play!

Dithers: (to Dagwood) Then you'll be playing better than ever when you're out of a job.

Dithers: (to Dagwood brandishing a golf club splendidly) That's more like it. [Flub]

Dithers의 끝 발언 *That's more like it*의 한역은 “이제야 제 실력이 나왔군”으로 되어있다. ***That's more like it!*** That is better: that is nearer what is needed: used to express satisfaction that things have improved or that what was wanted has actually happened. Manser (p.95)의 서술을 참조하면 이 한역은 본래의 실력이 되살아나왔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므로 “이제는 프로골퍼 수준이군”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 관용구의 표현은 대화장면이 달라지면 한국어 표현어구도 달라진다. ‘블론디’ 1월 27일분의 둘째 토막인 *Beasley: (to Dagwood at the door) Wait ... Your name isn't Marvin Snedbickly ... My mistake, I gave you the wrong batch. Dagwood: (to Beasley) Okay! That's more like it!* 를 검토한다. OECID (p.542)에서 이 관용구를 *That is a better way of behaving ... forceful or enthusiastic comment on the suitability/unsuitability of something* 으로 설명한 점을 참조하면 Dagwood의 발언 한역인 “그렇겠지요”를 “좋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더 마땅 하죠”로 수정해야 하겠다.

(8) Oct. 27th (In a luncheonette)

Dagwood: (to the Cook)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light and not too filling.

The Cook: (to Dagwood) Try the fruit salad platter.

Dagwood: Great call! That was a nice, light lunch.

Dagwood의 첫 발언의 한역은 “배부르지 않고 가벼운 걸로 하고 싶은데요”로 표현되어 있는데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light를 ‘가벼운’ 뜻으로 간주함도 가능하지마는 *easily digested* <*a light supper*>의 뜻으로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²⁾ something light and not too filling에서 filling은 동사 to fill의 현재분사의 형태로 기능은 형용사역할을 한다.³⁾ Quirk et al. (p. 447f)의 In informal style it (i.e. too) is also commonly used (especially in AmE) as a synonym of very in negative sentences: I'm not too <sure> about that. I'm not too <keen> on his paintings. I don't feel too <good>. ['very well']와 AHD² (p.1277)의 too의 usage: Too preceded by not or another form of negative is frequently employed as a form of understatement to convey humor or sarcasm: *He was not too pleased when she ignored him. He is not too bright.* When used for effect, it is employed on all levels. Not too, when used to mean approximately "not very," is generally considered informal: *Passage of the bill is not now considered too likely* (unacceptable in written usage to a large majority of the Usage Panel)을 고려하면 Dagwood의 첫 발언은 “소화 잘 되고, 배부름을 거의 모르는 걸로 먹고 싶은데요”로 수정되는 편이 더 낫다. 원 한역으로는 not too의 의미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다. Dagwood의 두 번째 발언인 Great call!의 한역인 “기막힌 추천이었지요!”에서 call에는 ‘추천’이란 의미가 없으며 request, demand등의 의미가 있고 nice는 in good taste의 뜻임으로 “내가 아주 주문을 잘했지요. 맛있고 소화 잘되는 점심이었지요”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2) 이회승편 국어대사전 (민중서관)의 형용사 ‘가볍다’는 음식물을 수식하는 의미와 예가 전혀 없음을 참고로 밝혀둔다.

3) Cobuild (p.534)의 Food that is **filling** makes you feel full when you have eaten it.의 서술을 참조할 것

(9) Oct 20th. (In a party for which Blondie has catered)

A male guest: (to Blondie, the caterer) I'll have my people contact
your people.

Blondie: (to the male guest) If you want to contact my people, I'm
it.

The male guest: (to Blondie) To tell you the truth, I'm it, too.

Blondie: (to the male guest) Good! Let's talk.

Blondie의 첫 발언의 한역인 “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게 바로 저예요.”를 검토한다. ECI (p.300)의 **Want to. should: ought to.** (Used mainly in the second person.)⁴⁾ To see Kent at its best, you *want to* go when the fruit trees are in blossom... The negative is expressed by *don't want to*. You *don't want to* drink strong coffee just before going to bed; it may keep you awake (= *should not*).의 구어체 용법에 의하여 Blondie의 첫 발언은 “제 사람들을 꼭 만나야 한다면 으뜸가는 대상자는 바로 저예요.”의 뜻이다. 한편 그 남자손님의 발언인 To tell you the truth, I'm it, too의 한역은 “사실은 저도 그래요”로 표현되어 있다. ODCIE (p. 541)의 **to tell you the truth** (disjunct) speaking more exactly; as a matter of fact의 서술과 여기서의 대명사 it는 ‘으뜸가는 대상자’를 뜻함을 참작하면 더 적합한 한역은 “꼭 만나야 할 사람은 실제로는 나요”가 되겠다. 위뢰를 할 고객이고 남성인 경우는 더 당당한 표현인 “나”를, 고객의 비위를 맞춰야 할 약자인 피뢰뢰

4) WND³ (p. 1503) *Want* is also used colloquially as an auxiliary meaning *ought* or *should* (you *want to* be careful crossing streets.) 주어가 제 2 인칭이 아니고 LDCE² (P. 1185)의 The work *wants to* be done with great care. 처럼 사물인 경우도 있다.

인이며 여성이 즐겨 사용하는 적절한 자칭은 ‘저’를 사용하여 구분지을 필요가 있겠다. 올바른 언어사용을 이해·활용하기 위해서, 구어체 표현 번역의 영역에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도 화용론의 지식의 습득과 활용이 필수적임을 알게 된다.

(10) August 16th (In Dither's office)

Dithers: (to himself) Dagwood's got to get that contract signed!

Dithers: I just hope he has enough self-confidence to get it done!

Some employee: (shouting out loudly, receiving the phone from

Bumstead) **Bumstead has left the building!!!**

Dithers: (to himself, with great joy) He's got it!

Dithers의 두 번째 발언의 한역은 “계약서를 마무리할만큼 두독한 배짱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는 문제가 있다. 가정법의 시제표현인 듯하다. Close (*Reference*, p.71)에서 In *I hope to see*, ... if the subjects of *hope* and *see* are different, ... the construction *hope to see* cannot be used. Instead, we would say: *I hope (that) you will see him this evening*. Present tense is also frequently used in the *that*-clause after HOPE. eg. *I hope you see him this evening*.의 서술과 Swan (§297)에 The verb *hope* is often followed by a present tense with a future meaning, especially in the first person. *I hope she likes* (=will like) *the flowers*. *I hope the cavalry arrive* (=will arrive) *soon*. 의 서술을 접하게 되어, 문제의 한역이 오역임을 알게 된다. Dithers의 이 발언은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도록 할만큼 자신만만 하기를 정말 바라는데”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⁵⁾ 회사의 한 직원의 옆방에서 Bumstead의 전화보고를 듣고서 큰소리

5) 형용사 enough의 어순에 관한 Swan (§203)의 서술에 주목할 것. It used to

로 외치는 부분의 한역인 “범스테드가 그 건물을 떠났어요!!!”에서 그 건물을 화용론적 과정에서 고려하면, 전방조응적(anaphoric)해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건물”을 “상대방 계약회사 건물”로 바꿔야할 것이다.⁶⁾ Dithers의 세 번째 발언 중의 it나 두 번째 발언 중의 it는 다같이 첫 번째 발언내의 that contract를 전방조응적으로 지칭한 대명사임은 자명하다.

(11) Nov 3rd (At a divorce party)

Wife: (to Husband) Wasn't that a fabulous final party for us?

Husband: (to Wife) I'll say, but you look so lovely, I hate to lose you.

_____: What'd you say we have a second-time-around party?

Wife: (to Husband) Absolutely! [Kiss]

남편의 첫 발언의 한역 “내가 하고싶은 말이야, 하지만 당신은 ... “에 해당하는 I'll say, but you look ...를 검토한다. I'll say는 Yes, indeed; emphatically yes 등의 의미인 영어 관용구임으로 한국어의 동일 의미표시의 관용구인 “정말 그래”, “내말이 그말이야” 중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 I'll say, but... 표현에서의 but 의 의미를 “하지만 ...”로 번역했으나, I'll say는 파티에 대한 아내의 평가의 적극적 긍정 표현이며, 바로 뒤에 부정표현인 but 절 ... 부분은 “이혼 파티를 하고는 있지만 ...”으로 바꿔야 타당하다. 남편의 두 번째 발언중의 a second-time-around party에서

be common to put *enough* after a noun; this is not very frequent in modern English. *Have I got time enough to go to the bank?* (Or: ... **enough time**...?)

- 6) 다음 대화문에서의 정관사 및 부정관사의 기능을 식별할 것. “By the way, Mr. Hare, you're *the* lawyer, aren't you?” “*The* lawyer? Let's settle for a lawyer?”—J. Hilton, *Morning Journey*

‘두 번째 ... “의 표현은 두 번, 세번, 네번 째로 등장할 가능성을 내포함으로 적절치 못하며 ‘두 번째 결합 ...”을 ‘재결합 ... “으로 수정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⁷⁾ What would you say?는 Do you agree with my suggestion?의 의미를 가진 관용구임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아내의 마지막 발언인 **absolutely!**는 상대방의 표현에 전폭적 긍정의 의미표시이다. 그런데 “Do you think so?” 등의 사실여부를 문의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absolutely**는 ‘(정말) 그래요’는 당연하다. 그러나 What would you say...? How about...? Why don't you...? 등의 제안에 대한 (전폭적) 긍정표현인 ‘**absolutely!**’는 ‘정말 그렇게 합시다’; ‘꼭 그럼시다’의 표현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2) Oct. 22nd (in bed late at night)

Dagwood: (to himself, reading a book, while Blondie tries to fall asleep) Shoot... I just wish I had some third option.

이 발언의 한역은 “아이구 ... 제 3의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로 되어있다. NWD³에 의하면 감탄사 **shoot**를 an exclamation expressing disgust, disappointment, etc. 로 서술하였다. 감탄사 **shoot**는 ‘제기랄’; ‘젠장’; ‘쳇’ 등이 남성인 Dagwood의 사용에 더 적절하다. 문제는 I wish I had...의 구문에서 I had...절은 과거사실의 서술이 아니고 현재사실의 반대상태를 기원하는 표현임은 공지사실인데 어찌 이런 번역이 가능한지.

7) 첫 번째, 두 번째 ... 등의 고유 한국어 어휘에 한자등의 외래어 어휘인 ‘결합’이 합성한 것보다 재(再), 제삼 ... 등의 한자계통 수사가 ‘결합’과 합성하여 ‘재결합’으로 하는 것이 ‘두번째 결합’보다 더 자연스럽지 않는지, 참고로 ‘두번째 만남’이 ‘재만남’보다 훨씬 자연스럽다.

아내 Blondie가 하루 일과후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간절히 청하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Dagwood에겐 전등불은 끄고 잠을 청할 것인지 또는 책을 끝까지 읽어 갈것인지 두 선택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현재의 상황이며, some은 [sʌm]으로 강세를 두고 발음한다. 이 발언은 “젠장 ... 근사한 제삼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으련만” 정도가 무난하겠다.

(13) June 13th (At the door of the Bumstead's house)

A peddler: (Pulling a small gadget out of a duffel bag, and showing it to Dagwood coming to the door) **Ta-daa!!**

Dagwood: (Slamming the door on the peddler) **Ta-daa!!-Slam-**

The peddler: (Coming out of the Bumsteads' house after failing to sell even a small article, to himself) His **ta-daa** trumped my **ta-daa**.

한역에서 ta-daa를 ‘짜-잔’으로 표현되어있다. ta는 감탄사로 Thank you; Thanks의 뜻을 표시한다. daa는 ta를 연발하여 생성되는데 ta-taa는 두번째 [t]가 유성음화 즉 t→d/v-v의 원리로 [d]로 변한 것이다. 다음 부자간의 대화를 고찰한다. “Well,” said Sam, “good bye.” “Tar, tar, Sammy,” replied his father. -C.Dickens, *Pickwick Papers*. 여기서 tar는 ta의 음성변형의 결과로 생성된 어휘이며, 이 문맥에선 good bye의 의미를 가진다. Sam과 지소사(diminutive) Sammy의 관계, 즉 부친이 아들 Sam의 애정표시 어휘인 Sammy와의 관계는 Dad-Daddy, Mom-Mommy, bird-birdie 등에서 알 수 있다. 행상인과 Dagwood간의 ta-daa의 상호 교환에서 후자의 ta-daa에는 전자에 대해서 약을 올리는 심술궂은 심정에서, 전자가 사용한 어휘를 비꼬아서 흉내내어 반복한 현상이

라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의 ta-daa는 행상인의 경우는 ‘사주면 고마워요’의 뜻이고 Dagwood의 반복하는 ta-daa는 ‘사주면 고맙다구, 웬’이라고 소리 지르며, 현관문을 달아서 행상인에게 귀찮게 했다고 화풀이를 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는 ta-daa를 정체불명의 ‘짜-잔’보다 ‘사주면 고마워’로 표현하는 타당하다.

(14) Sept. 29th (In Dagwood Bumstead's office)

Dithers: (to Dagwood) There's a lot of stuff in your "in" tray,
but absolutely nothing in your "out" tray.

_____: Say, what is in your "in" tray?

Dagwood: (to Dithers) My snacks.

Dithers 사장의 두번째 발언의 한역은 “말해 보게, 자네 미결 서류함에 있는게 뭐가”이다. 구어체 표현인 Say는 감탄사로 사용되며, 미국영어 표현이고 영국영어에선 I say로 표시되며 이 상황에서는 used to express surprise or to attract (the other's) attention, esp. to what one is about to say (LDEI p.285)를 참조하면, Say는 “말해보게”가 아니고, “이봐! 잠깐”으로 수정하는 것이 구어표현 장면에 더 어울린다.

(15) Nov. 11th (At Blondie and Tootsie's catering store)

A lady customer: (To Blondie, the caterer) This will be my 10th wedding.

Blondie: (dumbfounded, to the lady customer) Excuse me...

Blondie: But don't you mean your 10th wedding anniversary?

The lady customer: No, it's my 10th wedding! I seem to have one every year.

_____: In fact, the international rice growers association

named me their bride of the decade.

Blondie의 첫 발언인 *Excuse me...*의 한역이 ‘잠깐만요...’로 되어있다.⁸⁾ *Excuse me*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이 상황에서의 *Excuse me*는 an expression used to apologise for expressing a disagreement with someone else; forgive me: ‘*Excuse me, but I think you’re wrong.*’ —Manser (p.47)의 서술을 판단하면 ‘sorry’ 정도의 의미를 지니므로, “미안하지만 혹시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닌지요...” 정도의 의미가 되겠다. 여성고객의 마지막 발언중의 *their bride of the decade*를 「지난 10년의 신부」로 한역하였는데 decade의 LECD²의 정의에 의하면 ‘a period of ten years’로 규정되어 ‘10년의...’ 보다는 ‘십년간의...’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⁹⁾

(16) Oct. 30th (In a restaurant)

Dithers: (to Dagwood) Dagwood, get rid of those flowers... They make me sneeze.

8) *Excuse me*가 “잠깐만요”라고 말하고서 이야기하는 중에 잠시 자리를 떠나면 서의 의미를 지닌 상황도 있다. Blundell et al. (p. 205f)의 다음 서술에 유념할 것. Leaving someone politely for a short time. On a guided tour of Edinburgh, you are walking down the street talking to your guide. Suddenly you notice something in a shop window. 1 *Excuse me*. 2 *Excuse me, I must just see how much those Scottish kilts cost*. 3 *Excuse me a moment/minute*. 4 *Excuse me. I’ll be back in a moment/minute*. 5 *Excuse me, I shan’t/won’t be a moment/minute*.

9) 세계 쌀재배인 협회의 활동을 언급한 것을 괄호안에 설명하였는데 영·미인의 결혼식 풍습과 쌀과의 관계도 유념할 것. 영미에선 결혼식이 끝난후 신랑 신부가 교회밖으로 나오면 이 커플에게 장미 꽃송이나 종이 부스럭기(confetti)와 함께 쌀알을 뿌리는 행위(rice throwing)가 있으며 이는 자손번영의 기원의 표시라고 한다. 결혼식을 많이 거행 할수록 쌀의 소비량이 많아짐

Dagwood: (to himself while going away somewhere carrying a flower bouquet in his hands) Let's see, ah, where...

A girl: (sitting alone at a table impatiently, to Dagwood) Albert? Are you my blind date? Flowers! How sweet!

____: You don't look at all like I imagined! Tell me about...

Dagwood: (taking a seat beside the girl sitting at a table) Uh, Miss... Excuse me...

Dithers: (to Dagwood taking a seat at another table) Now what?

Dagwood의 첫번째 발언중 Let's see를 한역에선 “보자!”로 표현했는데, Manser (p.141)의 다음 서술을 참조한다. **Let me (or let's) see** An expression used to give the speaker time to think what to say next: ‘Do you know that smell?’ ‘Ah! Let me see... Yes, it's rotten eggs!’ 한역의 “보자” 앞에 ‘어디 생각해’를 첨가하여 “어디 생각해보자”나 “잠깐만 글썽”로 수정함이 훨씬 적절하다. Dagwood의 표현이 Let me see가 아니라 Let's see로 즉 us 형이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 서술을 참조하기 바란다. ECI (p.302) We. In colloquial English sometimes used for the singular I, as us is for me, but only in conversation of a very informal kind. <Could I have leave of absence next Friday?— We'll have to think about that (i.e. I shall/will)> <Could you tell us the time?(i.e.me)> Very common, is *Let's* for *Let me*, in a request. <Let's have a look at your birthday present.> Dagwood의 두번째의 발언 중 Excuse me...의 한역이 “실례합니다...”는 Manser (p.47)의 다음 서술을 참조하기 바란다. “Excuse me, but isn't that my parking place you've put your car in?”의 예에서 excuse me를 an expression showing annoyance로 규정한다. 이 부분은 “공연히 이렇게 합석하게 된 자초지종은

... “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Dithers의 맨끝 발언인 Now what?는 Now what on earth are you doing over there?의 축약으로 추정되어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다그웨드?”로 번역하는 편이 좋겠다.

(17) Sept 23rd (In a hospital)

Cora: (to Dagwood) The doctor says that Julius can go home now,
but he doesn't want to.

Dithers 사장부인 Cora의 발언의 한역은 “의사 선생님 말이 줄리어스 사장님이 퇴원해도 된다는데 ...”로 되어있다. 영미사회에선 부인이 자기 남편을 호칭할 때 first name으로 부르는 일은 당연하다. Dagwood가 모시고 있는 사장의 이름은 Julius C. Dithers임을 ‘블론디’ 만화를 애독하는 사람에게 공지사실이다. ‘줄리어스 사장님’의 표현은 한국사회 홍길동씨의 경우, ‘홍길동 사장님’, ‘홍 사장님’은 가능하나, ‘길동 사장님’이란 어불성설이다. ‘디더즈 사장님’ 또는 그냥 ‘사장님’, ‘그 양반’, ‘우리 그이’ 등의 어휘로 수정해야겠다.

Oct. 28th (Alexander and Cookie are talking to Dagwood and
Blondie in the living room).

Cookie: (to Dagwood and Blondie) Mom, Dad... Alexander and I
would like to take you out to dinner on your wedding
anniversary next week.

Blondie: (to Alexander and Cookie) How sweet!

Cookie의 발언중 Alexander and I...의 한역이 “알렉산더와 제

가...”로 표현되었는데 “오빠하고 제가...”로 수정해야겠다. Bumstead집안에 아들과 딸이 하나씩만 있기 때문에 ‘알렉산더 오빠’도 어색하고 어린 여동생이 오라버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한국 사회에선 예의에 어긋나므로 한역에는—비록 영·미국사회에서 성행하는 관습이지마는—불가하다. Blondie여인의 발언 How sweet!의 한역이 “참 근사하겠구나!”도 문제가 되겠다. ‘결혼기념일의 저녁식사’가 근사하겠다는 뜻인데 ‘근사한 옷차림’의 예처럼 ‘근사한’은 ‘그렇듯하게 괜찮은, 꽤 좋은’ 뜻의[Non-Human]에 사용된다. 한편 인성을 표현한 경우를 검토한다. 형용사 **sweet**에는 having a pleasing disposition; characterized by kindness and gentleness의 뜻의 경우 “너희들의 마음씨가 정말 상냥하구나/착하구나!”로 하거나 sweet가 agreeable to the mind; gratifying의 뜻의 경우는 “우리 부모들에게 정말 흠족하구나”로 수정이 요망된다. 형용사 sweet의 다의성에도 기인하겠지마는 이 상황에서의 sweet는 [Human Quality]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

(18) May 21st (In Sam's taxidermy shop)

Sam (taxidermist): (to Dagwood) Don't worry, Mr. Bumstead.

It'll make a nice mount.

Dagwood: Great!

Sam의 발언의 한역이 “걱정 마세요, 범스테드씨. 멋진 장식품이 될 겁니다.”로 되어있다. a mount가 장식품으로 표현한 모양인데 박제품(剝製品)으로 수정해야 한다. 동사 **mount** vt. to stuff or arrange (the skin or skelton of an animal) for exhibition esp. in a natural position or attitude.—*Webster International*³(p.1477)의 뜻이며 동사가 명사로 품사전환의 예이다. taxidermy(박제술) 가게에

서 보석과 관계되는 장식품과의 연관은 무리한 해석이다. *Great!*의 한역은 “좋습니다”로 되기 일수이다. Swan (§ 109)의 *Note the (informal) use of great as an exclamation to show liking or approval: ‘How do you like my dress?’—‘Great!’*의 서술과 Manser (p.65)의 **That’s great!** *That’s fantastic!...* Also used sarcastically도 아울러 고려하기 바란다. ‘블론디’에서의 반어적 의미의 예를 하나 제시한다. (In bed at night) *Dagwood:* (to Blondie) Isn’t that amazing?! I was snoring and I was **dreaming** that I was snoring! Isn’t that incredible?! *Dagwood:* (to himself) Dreams are so strange!! Here I was totally asleep, **dreaming** that I was doing what I was **actually** doing!! *Blondie:* (to herself, half being asleep) *Great...* I can’t sleep when he’s asleep and I can’t sleep when he’s awake. (May, 19th, 97). Blondie 발언의 *Great...* 를 한역에선 “대단해...”로 되어있는데 이를 “난처하군요. 이 일을 어떻게 한담!” 정도로 수정해야 하겠다.

(19) Sept. 5th

Alexander: (along with Cookie, to Dagwood) We need raises in our allowance, Dad.

Dagwood: (to Alexander) No way! Forget it! Money is too tight right now!

Dagwood의 발언중 *Forget it!*의 한역이 “잊어버려라!”로 되어 있는데 Cobuild (p.569)의 You say **‘forget it’** in reply to someone... as an emphatic way of saying no to a suggestion의 서술을 참고하면 ‘어림없는 소리!’로 수정하는 것이 요망된다.

(20) Oct. 14th

Paul: (to Dithers and Dagwood who happens to be in the boss's room after the working hour) Nite, boss... See you, Dag.

Dagwood: (to Paul, ready to leave the company) Nite, Paul.

Dagwood: (to Dithers) Newlyweds! They can't wait to get home.

Dithers: (to Dagwood) That's for sure!

첫 장면의 한역은 “좋은 밤 되세요, 사장님. 대그우드씨도 안녕” “좋은 밤되게, 폴”로 이어간다. Good night가 Night로 단축되어 철자가 Nite로 바뀌은 것이므로 ‘좋은 밤 되세요’는 어색하다. Cobuild (p.628)의 You say ‘**Goodnight**’ to someone late in the evening, when you or they are going home, going to bed...의 서술을 참조하면 “안녕히 계십시오. 저 먼저 갑니다. 사장님... 대그씨 내일 다시봐요” “어서 빨리 가게나, 폴”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무난하겠다. Dagwood의 두번째 발언인 Newlyweds!는 ‘신혼부부거든요!’가 아니라 ‘신혼자들이거든요!’로 고쳐야 한다. **newlywed** n. a recently married person(NWD³); [usu. pl.] a person recently married (LDCE²)로 정의가 되어 있다. 신혼부부이면 a newlywed couple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미국사회라도 같은 회사에서 신혼부부의 쌍이 있기란 희귀한 일이다. Dithers씨의 발언의 한역인 “물론 그렇겠지!”도 좋으나, “여부가 있겠나!” 등의 한국어 관용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21) April 15th (At the door of the Bumsteads' house)

Beasley: (to Dagwood coming to the door for the mail) And last but not least, one from the sweepstakes people.

Dagwood: (to Beasley) I know, I know.... “**You may already be**

a winner!" I never win... Forget it!

Beasley: (to Dagwood) This one is different! Look at the envelope... "Tough luck, Mr. Bumstead, you were nearly a winner!"

Beasley의 첫 발언의 한역은 "행운권타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온 그렇고 그런 우편이지만 잘 보세요"로 되어있다. 그런데, **last but not least**는 Manser (p.92)의 서술에는 used to introduce an important item that comes last in a list로, Word Wise (p.317)은 이 관용구를 said of the best item on a list that is deliberately left until last. "And now, last but not least, the star of our show: Bendy Wendy."로 서술하고 있다.¹⁰⁾

이 상황에선 형용사구가 아닌 부사구 역할을 하고 있다. Dagwood 발언의 I know, I know... 는 Cobuild (p.802) You say 'I know' to show that you accept that something is true, but think that it is only partly true or not very important. And long ago, I know, people had to work far too hard... 'I know, I know,' Vaughan said impatiently의 서술을 참조하면 "별 것 아닌 줄 알아요. 알아요..."의 뜻이다. 인용부호가 적혀있는 부분의 한역인 '벌써 당첨됐을지도 모른단 말이죠!'는 " '당첨통지서일 수 있습니다!' 라고 걸봉에 적혀 있군요"로 수정돼야한다. Forget it!는 Manser (p.54) Let everything stay as it is; there is no need for paying attention to it를 의미함을 아울러 참조하면 Beasley의 첫 발언과 Dagwood의 발언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 드리지만, 역시 중요한 것으로, 복권 관련업자에게서 온 편지죠." "별 것 아닌 줄 알아요, 알

10) 이 관용구는 W. Shakespeare, *Julius Caesar* 3.1.189 — Though last, not least in love, yours, good Trebonius.에서 출처를 찾게 되고, 영어 사용자에게 아주 친숙한 표현이다.

아 ... ‘당첨통지서일 수 있습니다 라고 걸봉에 적혀있군!’ 난 당첨과는 통 연이 없죠 ... 마음 쓸 것 못돼죠.” 정도로 옮길 수 있겠다. Beasley의 두번째 발언 중의 인용부호 안의 한역은 ‘억세게 운없는 사람, 범스테드씨, 당신은 거의 승리의 문턱에까지 갔었습니다!’ 이다. Manser (p.99)의 **Bad/ Hard/ Tough Luck! An expression of sympathy about someone's misfortune**을 고려하면, 인용부호 안의 번역은 “참 애석하게 됐습니다. 범스테드씨, 거의 당첨될 뻔했었습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정도가 무난하겠다.

(22) May 3rd

Blondie: (to Dagwood falling fast asleep in bed late in the morning) Dagwood, you've never been this late before!

Dagwood: (still in bed, to Blondie urging him to get out of the bed) I just can't wake up.

Blondie: (to Dagwood) The carpool is going to leave without you!

Dagwood: (to Blondie) Nah, they'll get upset, but they would never leave without me.

_____: (in Blondie's van, sitting, in low spirits, on the front seat, with Blondie driving her caterers' van) Then again, maybe they would.

Dagwood의 첫번째 발언중의 just의 용법은 Cobuild (p.789)의 You use **just** to give emphasis to what you are saying. The word following 'just' is usually stressed. eg *He won't listen! He just won't!... We've just got to wait ...*의 서술에서 알 수 있고 “통 깨어날 수 없어”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Blondie의 두번째 발언의 한역이 “카풀 차가 당신을 태우지 않고 떠

날 거예요!”로 되어 있다. WND³의 **car pool**의 정의는 an arrangement by a group to rotate the use of their cars, as for going to work (and back home)이며, 여기서 the carpool은 the rest of the car pool team을 의미한다. 바로 뒤따르는 Dagwood의 발언에서 they로 대용한 점이 이를 입증한다.¹¹⁾ 즉 team, family, army, police, orchestra, government, etc., any, group, jury 등은 소위 집합명사이며 한 단체로 간주할 때는 단수로, 그 명사의 구성원을 염두에 둘 경우는 복수로 취급됨은 공지사항이다. The **Cabinet** has made its decision, but the **Cabinet** are resuming their places around the table at Number 10 Downing Street.// The **committee** {who were/which was} responsible for this decision... 따라서 이 부분은 “순환공동 차량 동승자들이...”로 수정되어야 한다. Dagwood의 마지막 발언 중의 then again을 한역에서 “맞아.”로 옮긴 것은 의미도 틀리고 전후의 발언내용에 비취도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You can use **again**, esp. in the expressions ‘then again’ and ‘there again’, to introduce a different point or opinion, often one which contradicts what has just been said. (Cobuild p.27)과 **then/there again** [Conj.] additionally; alternatively... introduces a clause in which another consideration or possibility is mentioned. (ODCIE p. 545)를 아울러 참조하면 Dagwood의 마지막 발언은 “아니. 그렇지 않고, 날 두고서, 어찌면 그냥 출발할 수 있겠군.”으로 옮겨야겠다.

11) cf. Dagwood: (to Elmo) But where's the rest of the team? Elmo: (to Dagwood) They' ll be here soon...(Nov.24th,97)// Dithers: (in a fit of rage, to Dagwood coming to work late in the morning) You' re late again!! Dagwood: (to Dithers) Have a heart, boss... I' ve already been bawled out by my carpool for being late. (Aug. 28th, 97). //Dagwood: I hurt my hamstring running out for my carpool.(May 6th)과의 차이에 주목할 것.

(23) Feb.19th (In the bedroom, late in the morning)

Blondie: (to Dagwood falling fast asleep) Dagwood, you're the world's all-time champion oversleeper!

_____: Well, aren't you getting up?!

Dagwood: (to Blondie persuading him to get up right away)
Heck no! I have a title to uphold.

_____: (to himself, being fallen off the bed to the floor) I can remember when being a champion got you some respect.

Blondie의 발언의 한역을 고찰한다. “대그우드, 당신은 영원한 늦잠자기 챔피언이군요!” “안 일어나요?”에서 **all-time**은 attributive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로, “영원한”의 의미는 없다.¹²⁾

영미사회에선 부인이 남편을 질책할 때는 성씨를 떼고 이름 (first name)만을 부르는 것이 통례이지만 한국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Blondie의 두번째 발언의 첫 낱말 Well은 한역에선 표현되지 않고 있다. Cobuild (p.1655)의 You use ‘Well’, mainly in spoken English... to express your surprise or anger at something that someone has just said or done. eg *Well, really! What cheek!*를 참조하여 ‘이런’ 등의 어휘를 첨가해야겠다.

Blondie의 발언을 “여보, 당신은 사상 최장의 세계 늦잠꾸러기 경연대회 최우수 수상자이군요!” “이런! 기가 차서, 안 일어나요?” 정도로 수정해야겠다. 이제는 Dagwood의 마지막 발언의 한역을 검토할 차례이다. “챔피언이 존경받던 때가 있었는데”에는

12) cf. If you say that something is the **all-time** best, at an **all-time** low, etc, you mean that it is the best, lowest, etc that there has ever been. eg *Prices are at an all-time high.* (Cobuild p.39)

some respect의 some의 의미가 전혀 표시되지 않고 있다. 다음 ECI (p. 253)을 참조하기 바란다. Colloquially *some* is used in a complimentary or commendatory sense, with the meaning 'extraordinary'. *That's some apple* (i.e. a very big one). Perhaps the best-known example is Sir Winston Churchill's reply to Hitler's prophecy that 'in three weeks England will have her neck wrung like a chicken'.—'*Some chicken, some neck!*' 이 영국학자의 주장은 미국영어에서도 적용된다. 영어 구어체표현에서 some은 [sʌm]으로 강세를 두고 발음되며, remarkable, striking, considerable 등의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¹³⁾

이 장면에서 Blondie와 Dagwood가 사용한 you의 성격이 다르다. Dagwood의 발언인 " ... when being a champion got you some respect."에서의 **you**는 소위 generic "you"로 사용되었다. A speaker or writer uses **you** to refer to people in general rather than a particular person, for example in statements about what usually happens in a particular situation; used mainly in informal spoken English. eg *It's awful when you can't remember someone's name.* — Cobuild (p.1700). LDCE² (p.1226)의 *You have to be careful with people you don't know*도 같은 어법의 예이다. 이 부분의 Dagwood 발언은 "누구나 최우수 수상자가 되면 굉장한 존경을 받던 때가 있었는 걸" 정도로 수정되어야겠다.

(24) Jan. 24th (In his carpool vehicle Fellas is driving with
Dagwood, Herbert, and Claudia sitting in it.)

13) cf. **Some** is used informally, especially in American English, to express approval or admiration. eg *That was some meal we had last night... Boy, wouldn't that be some sport.*— (Cobuild p. 1388)

Herb: (to Dagwood) Did you have a good time at the basketball game last night?

Dagwood: (to Herb) Yeah, but...

Herb: (to Dagwood) But, what?

Dagwood: (to Herb) Well, the only people who can afford good seats anymore are the players.

Dagwood의 마지막 발언 부분의 한역을 고찰한다. “근데, 오직 선수들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지”에서는 부사인 *anymore*가 긍정문에 사용된 경우의 의미가 전혀 표현되지 않는다. 그리고 번역자가 간과한 사실은 질문자 발언의 시제(*tense*)가 과거임에 반하여 답변자는 현재시제의 발언을 했던 점이다. 답변자는 일종의 ‘객관적 사실’을 우회적으로 진술하면서 질문자에게 답변한 점에 유념하기 바란다. WND³ ***anymore*** *adv.* *now*; *nowadays*; *at present*: ... *dialectal in affirmative constructions* [That’s hard to get *anymore*]와 어법에 관한 한 보다 보수적 입장을 취했던 AHD² (p.117)은 ***anymore*** *adv.* ... *Regional. Nowadays*로 서술할 뿐이다.¹⁴⁾

AHD²가 1982년에 출판되었고 그 당시에도 구어체에 관한 한, 긍정문맥의 *anymore*의 사용을 인정했고 그 후 15년이 경과된 현재는 구어체 표현에선 표준어법으로 간주되며, *She’s a grown-up woman anymore* 등의 표현을 우리는 흔히 접하고 있다.

Dagwood의 끝 발언의 첫 어휘 *Well*의 용법에 유의한다. (23)

14) AHD² (p.117)에 ***anymore***의 *usage* 설명에 유념할 것. In many dialects of American English, *anymore* is used to mean “nowadays,” as in *the downtown garages are crowded anymore* or, sometimes, *anymore, she works a twelve-hour day*. This use is apt to confuse speakers who are not familiar with it and is not sufficiently well established to be acceptable in written prose.

에서 취급했던 *Well*와는 다른 용법인 듯하다. 다음 담화를 검토한다. A: What time is it? B: (a) Six o'clock/ (b) Well, I just told Bill that the sun just came up/ (c) * Well, six o'clock. B: (b)가 正文인 반면 B: (c)는 非文인 이유를 밝히면 *well*의 용법을 알 수 있겠다.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부족함이 없는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B: (a)에는 *well*가 불필요하다. *Well*은 질문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답장이 아님을 표시하는 데 흔히 쓰인다. 질문자로 하여금 推論으로 얻어지는 정보를 이끌어 내게끔 간접적 답변을 할 경우 답변자는 먼저, *well*을 발언한 후 답변내용을 우회적으로 하게 된다. 이 설명으로 발언 B: (b)가 정문이고 B: (c)가 적절치 않은 문임을 쉽게 알 수 있겠다. 즉 *well*은 답변자가 정보를 우회적으로 질문자에게 알린다는 신호역할을 한다. 이제는 Dagwood 발언에서 관계대명사 *who*에 관하여 몇마디 언급하겠다. Swan의 (§527)에서 *That is especially common after the following words: all, every(thing), some(thing), any(thing), no(thing), none, little, few, much, only. That is also very often used after the superlative. ... The only thing that matters is to find our way home*의 서술과 Swan의 (§525)에서 *That can often (but not always) be used instead of whom or which, and quite often instead of who. ... She's the only person that understands me*의 서술을 접한다. Quirk (p.1251)에서도 When the antecedent is modified by a superlative or by one of the post-determiners *first, last, next, only*, the relative pronoun as subject is usually *that*, and, as object, *that* or *zero* rather than *which* or *who(m)*을 읽게 된다. 영문법의 이런 정설과는 달리, 적어도 구어체 표현에서는 *only*를 수반한 선행사도 관계사로서 *that*가 아닌 *who*를 취한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블론디’에서 같은 용법의 예를 하나 더 인용한다. *Blondie*와

Dagwood 사이의 대화장면 발언이다.

Jan. 5th, 91

Blondie: I watched you through the window while you were shoveling snow.

Blondie: Do you know you were talking back and forth to yourself the whole time?

Blondie: Don't you think that's a little strange?

Dagwood: Not at all.

Dagwood: I'm *the only one who* was listening to me.

이런 여러 사실을 염두에 두고 Dagwood의 문제가 된 발언은 “글썸말이야. 좋은 관람석을 차지할 만큼 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요즈음은 (수입 좋은 프로) 선수들뿐이거든.” 정도로 수정해야겠다.

(25) Sept. 10th (In the kitchen of the Blumsteads' home)

Blondie: (Looking at Dagwood holding a huge three decker in his hands) Omigoodness, what on earth is in that sandwich?...

_____: (Watching him carrying the huge sandwich towards the sofa in the living room) What do you call something like that?

Dagwood: (without turning his face to Blondie) For now it's just a plain ol' sandwich...

_____: (looking back to Blondie) But wait'll you hear what I call it in a few hours!

경악 · 불신 · 공포등을 표현하는 감탄사가 영어에는 God를 사

용한 Oh God! God Almighty! My God! Oh Lord! 등이 있으나 완곡 표현으로 God 대신 gosh, goodness, golly, heavens 등을 사용하여 Oh my gosh, Oh golly, Omigosh, Migosh! Omigoodness! (Good) heavens! 등의 변형형이 ‘블론디’ 영어표현에 번번이 나타난다. Dagwood의 첫 발언의 한역인 “우선은 그냥 오래된 보통 샌드위치라고나 할까...?”를 검토하겠다. ECI (p.104)에 의하면 **for now**. 는 **for the time being**. We’ve about twenty pounds between us. That will be enough *for now*, though we may need some more later로 서술되어 있는 점을 봐서 “우선은”보다 “당분간은”이 더 적합한 표현이다. 15)

Cobuild (p.1001)의 **ole** is used in written English to represent the word ‘old’ pronounced in a particular way. eg *Don’t mess around with ole Clem...* 을 읽게 되는데 ‘블론디’에선 **ol**로 표기되어 old의 변형어휘이다. 구어체 표현에선 어휘의 끝자음 [d], [t]가 타락되는 것이 흔하다. 즉 old, child, hand, lost 등이 ole/ol’, chile, han, los’ 등으로 철자화된다. 16)

WND³ (p.943)의 **old**의 서술에서 adj. ... Also used as a colloquial intensive, esp. after certain favorable adjectives [a fine *old* time, good *old* Al]을 읽게 된다. old의 이 용법은 주로 친밀한 점을 표시하며 dear, good, fine, high, jolly, grand, rare 등의 형용사와 합쳐, old는 이런 형용사 뒤에 위치한다. ‘블론디’에서 한 예를 제

15)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민중서관)의 부사 ‘우선’은 ‘먼저’로, 이승녕 편 삼화 학습국어사전(삼화출판사)의 부사 ‘우선’은 ‘무엇보다 먼저, 위선’으로 풀이한 걸로 봐서 **for now**의 뜻을 표준어법으론 ‘우선은’ 아니다.

16) W. Faulkner, *Sound of the Fury* 에서의 예를 몇개만 제시한다. Will you think about *yo ole* (= you old) mammy ken (= can) drive dat (that) surrey right? (ch. 4) you’s de Lawd’s chile (=the Lord’s child), anyway/ You han (=hand) me dat whup (=whip).

시하겠다. Beasley: (to Dagwood coming to the door for the mail) Any outgoing mail? Anything the *good ol'* postal service can help you with? (Aug. 11th, 97). 문맥에 따라서는 Old는 경멸·비난·동정의 뜻을 가진 형용사 뒤에 나타낸다. *dirty, little, plain, poor* 등의 형용사가 이에 해당된다: Give mamma that *dirty old* stick의 예를 Webster³ (p.1570)에서 찾을 수 있으며, 또한 (p. 1729)에서 *Old is... often used to express... familiarity*로 설명하고 Fifty years ago, there was only one kind of pneumonia—just *plain old* pneumonia—R. J. Huebner의 예를 보게 된다. 물론 old의 이 용법은 attributive 용법에 한정되고 비교 변화도 하지 않음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형용사 plain 의미 정의중에서 이 문맥에 적합한 것으로는 devoid of strong seasoning or exotic ingredients <plain home cooking>이며 총괄적으로는 lacking special distinction의 의미 특성을 가진다. 한역의 “... 그냥 오래된 보통 샌드위치...”에서 음식물이 오래된 것은 물론 time-honored의 의미겠지마는 stale의 ‘만든지 오래 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잘 알려져 있는’ 뜻이 명시되지 않은 흠이 있다. Dagwood의 첫 발언을 “당분간, 그저 흔한 수수한 샌드위치라고나 볼까봐...”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Dagwood의 끝 발언에서 wait'll...은 wait till...의 축약형으로 발음나는 대로 철자화한 예가 되겠다. 전치사 till이 약음으로 구어체에서 발음됨을 실증한 예이다. 앞서 (20)에서 night 대신 nite로 철자한 것을 보았다. Stevens (p.66)의 'Non-standard spellings also occur in American English with more ease and frequency than in British English. Thus on a Buick car in 1947 the switches for sidelights and headlights were labelled LITES: on signs advertising dancing or other entertainments in America one frequently meets DANCING TONITE, whereas this is almost

unknown in British English'.¹⁷⁾의 서술을 엄두에 두기 바란다. 또 한역에서 in a few hours를 “...몇시간 안에”로 옮겼는 데 LDCE²(p.527)의 **in**의 정의인 (with lengths of time) **a** during not more than (the space of): *He learnt English in three weeks* (=and then he knew it)... **b** after; at the end of: ... *It's two o'clock; I'll come in an hour* (=at three o'clock)와 ‘in’과 ‘within’의 차이를 참조하면 “...몇시간 후에”로 표현되어야 한다. 시간표시의 전치사 ‘in’ 용법의 번역 오류는 I'll need a caterer in two months. (May, 5th)/ It's something you'll need to know for the future... like in the next 10 minutes. (July, 18th)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26) Sept. 1st (In the corridor just in front of Dithers' room)

Dithers: (Pulling a long face because of pain in his body, to Dagwood passing along right in front of his room, with another clerk Eddie holding some paper in his hand, expecting to report something to Dithers) I have this dull pain when I sit, but it goes away when I stand up.

_____: (to Dagwood) Oh, silly me! So that's what it was!

Eddie: (to Dagwood looking stunned, with Dithers returning to his room in a hurry) What was it?

Dagwood: (to Eddie) A fat wallet stuffed with cash.

Dithers의 첫 발언 중의 dull pain은 한역에선 “통증”으로 되어 있으나 “둔통(鈍痛)” 또는 “둔한 아픔”으로 옮기는 편이 정확하다. Dithers의 두번째 발언의 한역이 “이런, 멍청이하고는! 그래

17) cf. I know you gave me the XX...—O'Hara (=double cross)/ If you feel tempted to give the old gentleman the double X...—McHugh를 참고할 것.

서 그랬는데!”로 되어 있는데 의미가 불명확하다. **Dithers** 사장이 **Dagwood**를 마주보고 독백하듯 말하는 상황에서 ‘멍청이하고는!’ 발언내의 멍청이는 **Dagwood**를 지칭하고 번역한 듯하다. 그러나 **silly me!**의 **me**는 주격표시이다. 한 예를 제시한다. “**Why don’t you stay and have some hot chocolate! Silly me, I made enough for two.**”--**Archer, Kane** “... 나 말이야, 바보같이 2인분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정도의 뜻이다. 주격 대명사 표시를 구어체에서는 흔히 목적격 대명사로 사용한다. ‘블론디’에서 같은 용법의 한 예를 제시한다. **Dithers: (to Dagwood) I’m famished. Dagwood:(to Dithers) Let’s pop into that fast-food place down the street there. Dithers: (to Dagwood) Me eat fast food? No way! Dagwood: (to Dithers) Aw, come on boss, give it a try.**--(**Jan. 17th,97**). 이제는 **So that’s what it was!**의 정확한 의미를 구명한다. **Manser (p.163)의 That’s what it is (or was):** That is (or was) the reason or explanation: *‘That cab driver didn’t look very happy!’ ‘You drove straight out in front of him at the last set of traffic lights, that’s what it was.’* “그 행동이 바로 그 이유였어” 정도의 뜻이다. **Dithers**의 두번째 발언은 “병 핑계대고 일 못한다고 하소연 하다니 내가 어리석지! 그런 처신을 해대니 바로 어리석은 거지!”의 의미이다. 셋째토막의 **Eddie**와 **Dagwood**의 대화는 “바로 어리석은 것이 뭐였지?” “현찰로 가득차 두터워진 지갑과 같은 우리 사장이지”의 뜻이 되겠다.

(27) Aug. 1st (At the door of the Bumeteads’ house)

A tramp: (to Dagwood coming to the door to answer the door-bell) I'm a mind-reader! For \$5 I'll read your mind!

(The tramp is giving Dagwood a grimace of panic and terror, by grasping his own head with both his hands but Dagwood is showing complete indifference to the tramp's tricky legerdemain. His plan utterly falls flat.)

The tramp: Well, same to you, buddy!!

방랑인의 첫 발언 중 ‘... I'll read your mind!’ 부분의 한역이 “...당신 마음을 읽어주겠소!”로 되어 있는데 이 문맥에서의 read의 뜻은 AHD²(p.1030) to determine the intent or mood of: *can read her mind like a book*. 의 정의에 맞춰서 ‘...당신의 속마음(생각)의 심정(의도)를 확인하여 주겠소!’로 수정함이 요망된다. 방랑인의 두번째 발언의 한역인 “음, 당신도 마찬가지로군!!”을 검토한다.

(Oh) well Used to show a resigned acceptance of something bad: ‘*Oh well, it can't be helped.*’—Manser (p.177)와 Cobuild (p.1655)의 ...in the expression ‘(Oh) well’ to indicate that you accept that the situation cannot be changed, although you are not happy about it. e.g. *Oh well, you wouldn't understand.* (Oh) well의 이 장면에서의 번역은 “음”보다는 “도리 없군,, 뭐”로 옮기는 것이 낫겠다. 같은 용법의 well의 예를 하나 더 제시하겠다.

August 8th

Blondie: (Putting her right hand on the windowsill, to Dagwood washing the windows with water through the hose) Honey, don't use the hose on the windows, you might get water inside.

Dagwood: (pouring water on a windowpane, to Blondie inside the house) I've never had any trouble yet!

Blondie: (inside the house, to Dagwood carrying the water hose-pipe around the house) Well, I hope you're right.

Blondie의 두번째 발언의 한역은 “그래요, 당신이 맞기를 바래요.”로 되어 있는데 “별 도리 없군요. 부디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좋겠어요” 정도로 수정하는 편이 좋겠다.¹⁸⁾

다시 8월 1일자 ‘블론디’ 내용을 살펴본다. Buddy!!는 Cobuild (p.180)의 다음 서술 ‘Men sometimes use **buddy** as a form of address to other men; used in informal American English. eg *you dialed the wrong number, buddy.*’과 LDCE² (p.125)의 *sl. esp. AmE* (used as a form of address to a man, often in anger): *Get out of my way, buddy!*를 참조하면 ‘이 친구야!’로 옮길 수 있겠다. (And) **the same to you**를 두고 Manser (p.135)는 I wish you the same thing: said in reply to an unkind wish or insult로 Word Wise (p. 467)은 I wish you the same “And the same to you! How dare you call me that!”로, Cobuild (p.1283)은 If someone says something insulting to you, you can reply ‘**same to you**’ in order to insult them in return : a very informal expression, used mainly by children. eg.

18) Well의 다음 용법을 참고할 것. (At the barber shop) *Barber:* (to Dagwood) I've got a couple of new jokes for you. *Dagwood:* I'd rather just doze today. *Barber:* But one joke is really good! *Dagwood:* **Well**, do your best to keep it to yourself. (Nov. 18th, 97). Cobuild (p.1655)의 ‘You use ‘**Well**’... to express your doubt about something that someone has said’의 서술과 “At least Joe's a good sport.” “**Well**, go to him.” Cross told her, relishing his irony—Wright, *Outsider* “**Well**, spill it, man,” Pink urged impatiently. —*ibid* (Well의 뜻은 ‘그렇지가? 그렇다면’이다.) 세 개 예문의 공통적 여건은 well이 명령문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자의 행위의 이행을 촉구하여 화자의 기분이 언짢음을 표시하는 신호역할을 한다. 따라서 위 장면에서의 Dagwood의 발언은 한역인 “그렇다면 힘들겠지만 혼자만 알고 있으시오”에서 “그렇지가? 제발 혼자서나 알고 있으시오”로 수정해야 한다.

'You're twit.'--*'Same to you.'* 로 서술하고 있는데 Cobuild의 서술이 제일 명확한 설명인 듯 하다. 이상 검토한 바를 종합하여 방랑인의 두번째 발언을 “속수무책이군, 네 녀석도 같은 꼴 당해도 싸지. 이 친구야!!”로 수정되어야 하겠다.

(28) Sep. 20th (At the door of the Bumsteads' house)

Beasley: (to Dagwood coming to the door for the mail) I'm all dressed for my postal college reunion right after work.

Dagwood: (to Beasley) You went to a postal college?!

Beasley: (to Dagwood) Yeah, we even had a football team.

_____: (to himself, jumping for joy) **Stamp 'em out! Stamp 'em out! Lick 'em good!!**

Dagwood: (to himself, looking suspicious) Surely he's kidding.

Beasley의 첫 발언의 한역인 “일과후에 우편대학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정장을 하고 왔죠”를 고찰한다. a postal college 에서의 college의 WND³ (p. 274) 정의인 a school offering specialized instruction in some profession or occupation [a secretarial college]를 고려하면 a postal college는 “우편대학”이 아니라 “체신(전문)학교”가 되겠다. 가령 a secretarial college는 “비서 양성학원”, a barber college는 “미용사 양성학원”에 해당된다.¹⁹⁾

19) 어떤 어휘를 번역할 때 여러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가령 purse의 다음 의미를 알아본다. cf. (At a restaurant where Dagwood and Blondie are waiting for the dishes to be served impatiently) Dagwood: (to Blondie) I'm starving! Got any of those mints in your purse? (July, 24th)의 한역이 “...지갑에 민트과자 좀 가진 거 있소!”로 되어 있는데 purse를 기계적으로 ‘지갑’으로 파악한 모양인데 ‘여성용 핸드백’으로 고쳐야 한다. 지갑 속에 손페가 묻어 더러운 현찰·잔돈을 넣어 보관하는 마당에 음식물인 과자등을 넣을 만큼 크지도 않거니와, 위생상의 상식으로도 이 상황에서 purse가 지갑이 될 수는 없다는

Right after work를 “일과 후에”로 번역했는데 **right**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으니 “일과 직후에”로 수정해야겠다. 두번째 토막의 발언 중 **a football team**은 “풋볼팀”이 아니고 “미식 축구팀”이 더 타당하다. 셋째 토막에서의 **Beasley**의 발언 중 **stamp 'em out**를 먼저 검토한다. 'em은 상대방팀의 선수들을 지칭하며, **LDPV** (p.604)의 **stamp out** v adv to put a stop to (something) by forceful or violent means 와 **Word Wise** (p.512)의 **stamp out** put down “We must stamp out vandalism in this town once and for all.”의 구동사로서의 뜻과 **stamp out**의 자의적(literal) 의미인 ‘소인(消印)을 찍어 이미 사용되어 무효가 된 우표로 처리하다’와 결합한 기교적 표현이다. 또 **lick 'em good**를 “침을 발라(녹여버려)”도 문제가 된다. **WND**³ (p.779)의 **lick** vt. [Colloq.] a) to whip ; thrash b) to overcome, vanquish, defeat...의 정의를 참조하여 ‘소인 스탬프를 힘차게 후리쳐!!’와 “상대방 팀을 완전히 격파해!!”로 옮겨야하겠 다. 셋째토막의 **Dagwood** 발언의 한역인 “틀림없이 장난일거야”를 검토한다. 이 발언은 **Dagwood**가 **Beasley**에게 답변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독백한 것임을 알아야한다. 직접 면전을 향해서 말한 경우엔 **Surely you're kidding**의 표현일 것이다. **Manser** (p.87)의 **Your're kidding! I don't believe you!: 'You're kidding! You say you heard the Beatles at a concert —live? You're not old enough, surely?’**를 참조하면 한역인 “틀림없이 장난일거야”를 [독백]”정말 이 친구말 믿지 못하겠어”로 수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29) Nov. 28th (**Dagwood** and **Blondie**, in their car, are looking for a vacancy in a mall parking lot.)

것은 명백하다.

Blondie: (to Dagwood driving the car slowly) Look, honey,
there's a spot!

Dagwood: (to Blondie) Oh shoot, that little old lady wants it, too.

Dagwood: (to the old lady in her car) Go ahead, you can have the
spot.

A parking attendant: All's fair in love, war and mall parking.

Dagwood의 첫 발언 중 감탄사격인 look에 관한 Cobuild (p.859)의 다음 서술인 You say **look** when you want someone to pay attention to you because you are going to say something important.²⁰⁾ eg *Look, Paul, this is ridiculous...*를 참조하면 한역인 “여보, ...”를 “저 봐요, 당신, ...”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 같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look와 남편을 호칭하는 honey의 뜻이 두루 표시되기 때문이다. Dagwood의 두 번째 발언 중 go ahead의 한역이 “가세요”의 표현은 부적절하다. LDPV (p.241) **go ahead** v adv *infrm* to take action on one's own의 설명과 Fowler, W.S. *Dictionary of Idioms* (p.38) **go ahead** Proceed without hesitation: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matches? -Not at all. Go ahead.*를 아울러 참고하면 “주저 말고 거기에 주차하세요”정도가 무난한 번역이다. 세 번째 토막에서의 주차관리인의 한역인 “사람이든 전쟁이든 쇼핑센터 주차에서든 모두가 공평해야죠”에서 끝 부분의 한역인 “모두가 공평해야죠”는 정반대의 해석이다. “무슨 술책을 써도 다 정당화가 되죠” 정도의 우리말로 옮겨야 한다. 원래 이 표현 All's fair in love and war는 속담이며 ODCIE

20) Phythian, B. A. *A Concise Dictionary of English Slang* (p. 117)의 **Look!** Exclamation to attract attention, more often applied to hearing than sight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는 ‘applied to sight than hearing’도 해당된다고 하겠다.

(p.7) (saying) everything wrong, unethical etc that is done can be excused, because the normal rules of society do not apply in situations of personal conflict or of emotional involvement의 설명과 LDEI (p.205) In a situation that causes powerful emotions to be expressed, there can be no firm rules of behaviours [saying]의 서술을 참조하기 바란다.²¹⁾

(30) Aug. 29th (In the Bumsteads' bathroom)

A tile setter: (Setting tiles on the wall, to Dagwood watching him doing his job) If you have a son, tell him to get into tile setting...

_____ : A good tile setter can make \$700 a day.

Dagwood: (to the tile setter) Is that what this is costing me?

The tile setter: No, only \$400 a day, but then I m not a good tile setter.

우선 타일공의 첫 발언의 한역인 “아들이 있으시면 타일공을 시켜보세요...”에서 구동사 **get into: to learn or start (something)**. LDPV (p.217)의 의미가 뚜렷이 나타나도록 “...타일공 기술을 배우도록 하세요...”로 수정이 요망된다. Dagwood의 첫 발언은 “이게 그렇게 비싸단 말이요?”로 한역되어 있다. 영어동사 가운데서

21) 다음 대화를 음미할 것. John: “I’ve heard from Tom that you’re going to the movies with him next Saturday. You promised to go with me.” Mary: “Well, I changed my mind. He’s handsomer and more intelligent than you.” John: “You mean he’s much richer than me on top of that?” Mary: “*All’s fair in love and war*, you know.” Word Wise (p.181)에서 “He started shouting insults at me so I told everybody about his prison record – *all’s fair in love and war*.” Gulland, D.M. et al. *The Penguin Dictionary of English Idioms* (p.203)의 **all’s fair in love and war**—conventional morality does not apply to the most important activities in life.로 정의를 하는데 이탤릭체 부분을 참조하면 적합치 않은 서술이다.

Leech (p.21)이 지적한 대로 'state verbs of having and being' 인 (*be, belong to, contain, consist of, cost, depend on, deserve, have, matter, own, resemble, etc.*)는 진행형을 취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선 진행형을 택할 수 있는데 Leech (p.26)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Certain other verbs of Class G can take the Progressive when accompanied by an expression like *more and more* : He *is resembling* his father more and more as the years go by. | ... Good food *is costing* more since devaluation... and the explanation of the Progressive here seems to be that the verbs are no longer 'state verbs', but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class of 'process verbs'. *Resemble*, for example, here means 'to become like' rather than 'to be like'.²²⁾

요약해서 말하면 *more (and more)*나 *increasingly, gradually, every day* 등의 부사구를 동반하면 소위 중간동사(Middle Verbs)도 진행형을 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Dagwood의 첫 발언의 동사 *cost*가 위에 제시한 조건이 아니면서도 진행형을 택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화자의 강한 감정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중간동사가 진행형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한다. 다음 예에서 이를 알 수 있다. You know this place *is costing* me fifteen bucks? – Lynch, *Sky Girls*. 이 장면의 Dagwood의 발언은 격한 감정표시로 간주된다.²³⁾

22) '블론디'에서 한 예를 제시한다. Cookie: (to Dagwood) Honestly, daddy, you're *becoming* more like Mr. Dithers every day. (Sept 5th, 97). Quirk et al². (p. 803)은 Our technique *is becoming* increasingly specialized의 예를 제시하였다.

23) '블론디'에서 동사 *cost*관련 예문을 제시하니, 본문의 *cost* 동사의 형태와 비교하기 바란다. (At a bookstore) Blondie: (standing by Dagwood, to a bookseller) Wait a minute! Do you have that same book in paperback? The bookseller: Yes, we do... It's over there, and *costs* \$ 4.95. (Jan. 13th, 97)

이 부분의 한역은 “이게 그렇게 비싸단 말이에요?” 로 되어 있는데 명확한 의미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일당인금이 그토록 비싸니 이 공사로 내가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정도로 고쳐야 한다. 다음으로 타일공의 마지막 발언의 *but then* 이하의 한역인 “저는 그렇게 솜씨좋은 타일공이 아니거든요”를 고찰하겠다. 한역은 *but then*의 의미가 표시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의 첨가가 필수적이다. 영어에서 *She is a good/poor cook*는 *She cooks well/ badly// She is good/ bad at cooking* 의 의미로도 쓰인다는 것은 기본 지식이다. 이 사실을 고려하여 타일공의 마지막 발언의 *but then*이하 부분의 번역은 “그렇지만 그런 낮은 인금으로든 닥의 이 타일공사를 잘 해 드리지 못하죠” 정도로 수정되어야겠다. 구어체 표현의 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작가가 의도한 미묘한 웃음과 익살을 감지하지 못할 것이다.

3

이제까지 필자는 미국영어의 구어체 표현의 실태를 연재만화 ‘블론디’의 구어체 영어의 자료를 취급 이용하여, 불충분하나마 나름대로 살펴보았다. 한국어역을 참조할 때 오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현대 미국 구어체 영어의 실태를 구명하면서 한국어의 표현방식과의 차이점을 부각되도록 노력하였다. 더 지적할 사항이 수집 정리되어 지적할 사실이 남아있으나, 지면, 시간 관계로 이 정도로 마무리짓기로 한다. 구어체표현의 특유한 어법이 있으므로 문어체 어법만 알고서는 ‘블론디’의 영어 표현등을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구어체 표현을 연구하는 것도 문어체 표현의 그것에 못지않는 훌륭한 연구분야가 된

다. 구어체, 속어체 표현을 비하하여 무시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학계에선 앞으로 구어체 표현 연구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말로 옮기는 경우 아무리 자연스런, 매끈한 표현을 위한다는 구실로 어법과 관용구들의 엄연한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구어체 표현은 쉬운 어휘 및 어구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관용구·속담을 비롯하여, 특유의 의미를 지닌 표현방식이 많으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해야한다. 구어체 표현은 유동성이 풍부하여 생성 소멸의 속도가 문어체 표현의 그것보다 훨씬 빠르다. 화용론적 지식도 아울러 구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회와 여건이 주어진다면 보다 광범위한 '블론디' 구어체 영어를 위시한 구어표현을 연구하고 싶다.

참고문헌

Dictionaries

- Berube, M.S.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Second College Edition* (1982)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AHD²)
- Clark, J.O.E. *Word Wise, A Dictionary of English Idioms* (1988) London: Harrap Ltd. (Word Wise)
- Courtney, R. *Longman Dictionary of Phrasal Verbs* (1983) Harlow: Longman Group Limited. (LDPV)
- Cowie, A.P. et al. *Oxford Dictionary of Current Idiomatic English. Volume 2* (198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ODCIE)
- Long, T.H.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Idioms* (1979) Harlow: Longman Group Limited. (LDEI)
- Manser, M.H. *A Dictionary of Contemporary Idioms* (1983) London: Pan Books Ltd. (Manser)

- Neufeldt, V.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Third College Edition* (1988) New York: Simon & Shuster, Inc. (WND³)
- Sinclair, J. *Collins Cobuild English Language Dictionary* (1987) London : Collins ELT. (Cobuild)
- Summers, D.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Second Edition* (1987) Harlow: Longman Group UK Limited. (LDCE²)
- Wood, F.T. *English Colloquial Idioms* (1970) London: Macmillan Co. Ltd. (ECI)

Books

- Blundell, et al. *Function in English* (1982)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Close, R.A. *A Reference Grammar for Students of English* (1975) Harlow : Longman Group Limited .
- Leech, G.N. *Meaning and the English Verb* (1971) London: Longman Group Limited.
- Quirk, R. et al.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1985) New York: Longman Inc.
- Stevens, P. *British and American English* (1972) London: Collier-Macmillan Publishers.
- Swan, M. *Practical English Usage* (198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